

열린세상



정진탄 월간국장 겸 논설위원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시 대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 출마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그의 나이가 발목을 잡고 있다.

대신에 출마할 인물을 찾다 보니 클린턴 전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임기 4년인 미국 대통령은 국정 실패가 크게 없는 한 4년 연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임기 4년 내 성과 도출 한계

상식적으로 임기 4년이면 국정을 제대로 펴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이따금 나온다.

한국의 대통령 임기는 단임이지만 지방정

광주시장 선별의 기준

부의 단체장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며 연속 3회까지 할 수 있다.

연임을 못 한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것은 이번 지방선거, 특히 광주시장 선별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다.

때까지는 큰 틀이 달라지지 않을 듯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현안 업무가 밀릴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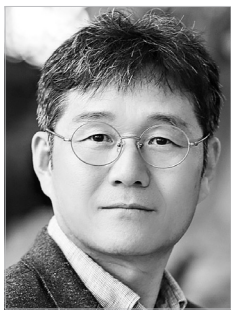
미래 안목·추진력 최우선

광주시는 현재 지역 및 국가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초광역도시를 목표로 인근 지자체와 각종 사업을 협상 중이다.

이런 상황에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성과 도출을 위해 4년을 더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하거나, 아니면 바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게 좋은가.

기고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

가축방역관(수의직공무원)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수의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수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수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5과목 평균 수능이 1.5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40만 명의 수험생 중에 성적 이 상위 4%에 들어야만 입학이 가능해진

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2000년도에 구제역(FMD), 2003년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20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국가재난형 질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A형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운영된다.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시급하다

중에서도 가축방역관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시간에도 사직하는 가축방역관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가축방역관 반자리는 남아있는 가축방역관들의 노동 강도를 더 올리게 되고, 결국은 사직자가 더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렇게 공직을 떠나는 가축방역관이 많다 보니 동물방역 현장의 현실은 아주 심각하다.

코로나19 의료현장의 문제를 타산지식으로 삼아 6년 전문 과정을 마친 수의사의 수준에 맞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하기를 희망한다.

동물질병의 문제는 이제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반의 문제가 됐다.

동물의 건강-인간의 건강이 직결되어 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동물방역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특지광장

최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일명 전동스쿠터라는 전동휠체어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사회적 약자 이동수단 안전이 우선

하지만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용자는 드문 실정이다.

본이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여서 교통사고에 직면할 경우 빠른 대처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인 데다 일부 구형 전동 휠체어의 경우 야간 운전엔 필요한 안전장치마저 구비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없다.

경찰에서도 스쿠터 이용자들에 대해야 강조구나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고예방을 위해 차도 주행 및 야간 주행을 피하는 한편 판매업자 역시 안전장치 설치 등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의사과장

사설

'민주화 어머니' 영면을 기원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9일 별세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배 여사는 아들 이한열 열사가 1987년 6월 9일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지자 아들의 뒤를 이어 민주화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배 여사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에 참여해 민주화 시위·집회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힘을 보탤 때다.

배 여사는 2009년에는 용산참사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다"고 적었다.

배 여사는 2009년에는 용산참사 소식을 듣고 용산범대위 공동대표를 맡

기도 했다. 특히 배 여사는 고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고 이소선 여사와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 고 박정기 씨 등과 함께 '한울삼' 회원들과 함께 아들이 뒀다 한 민주화운동을 이어갔다.

옛 광주적십자병원 활용 방안 찾아야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의 원형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진다.

정말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영안실은 D등급, 기아보호소는 E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형 보존을 선택하면 본관

동 극히 일부방만 방문자센터·현열의 집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애초 원했던 원형 보존이 어렵고 안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권장된다.

광주, 대한민국 고자기장 연구 중심지로

기시수첩

광주시가 올해 국가 고자기장 연구 시설 구축을 본격화한다.

자기장은 자석이나 움직이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자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영역이다.

대표적으로 신원카트나 전철 승차권에 자성입자를 붙여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고자기장(High Magnetic Field)은 이러한 자기장 세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광주시는 그간 서울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등 관련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각종 지원을 개최하며 기반을 마련해왔다.



오선우 정처부 기자

기업, 한국전기연구원, KBSI 등 우수 연구기반시설이 입지해 있다.

사업 추진도 전략적이다.

고자기장은 기초과학을 비롯해 전 세계 1일 생활권의 하이퍼루프, 도심형 항공기용 전기추진체, 친환경 풍력발전기, 고해상 자기공명영상장치·암치료를 위한 방사선 조사 기구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의 현장화를 통해 인간의 삶이 더욱 편리하고 윤택해질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social welfare.

Table for 전남매일 (Jeonnam Daily)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subscription rates.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